2015년도 공모사업 문학 및 연극 분야 심의 총평

문학분야

○ 일시 : 2014. 12. 22(월) 10:00~16:00 / 2015. 3. 20(금) 16:00~18:00

○ 장소 : 아르코예술극장 회의실 / 아르코미술관 회의실

○ 심의위원 : 권지예, 김기택, 유홍준, 이남호, 하용백

1. 지원심의 대상사업 및 심의과정

2015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문학분과 지원심의위원회는 '우수문예지발간지원', '문학창작공간지원', '문학행사및연구지원',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지원', '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기획형)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등 총 7개 유형의 사업에 대하여 심의하였다. 7개 유형 사업의 총 신청건수는 178건이었으며 신청 총액은 4,001백만 원이었다.

심사과정은 심의위원별 사전 검토와 심의회의 논의를 거쳐 진행되었다. 심의위원들은 사무처에서 심의 사전에 발송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였으며, 심의회의는 2014년 12월 및 2015년 3월 2차에 걸쳐 진행되었다. 심의회의에서는 신청사업에 대한 위원별 사전 검토의견과 전체적인 관점의 토론을 통해 지원대상과 지원 금액을 결정하였다.

2. 사업유형별 심의평

<우수문예지발간지원>

우수문예지발간지원사업에는 98건의 지원신청이 접수되었다. 대상 문예지를 선정함에 있어 소액다건 방식의 지원을 지양하고 문예지 내용의 충실성과 파급효과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전년도에 지원을 받은 문예지의 경우 견본 문예지 사전 검토를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문예지의 수준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지 검토하여 계속 지원 여부를 결정하였다.

2015년은 문학사업 개편 준비를 위한 해로 종합 토의를 통해 우수한 문학종합지와 전문지를 중심으로 지원 단체를 선정하였으며, 그 결과 총 14개 사업을 선정하였다. 지원예산은 문예지 발간 주기 및 발간 부수를 고려하여 배정하였다.

<문학창작공간지원>

창작공간의 규모와 시설, 그리고 작가들의 활용도를 기준으로 실질적인 숙식 제공을 통해 시인과 작가의 창작산실이 될 수 있는지, 시설은 어느 정도인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기존에 창작공간 운영이 잘되고 있는 단체에는 계속 지원을 결정하였다. 단, 집필공간이 증설되었거나, 사업 수행 실적이 탁월한 공간은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당초 계획을 실행하지 못한 공간에 대해서는 지원액을 다소 축소 조정하였다.

2015년도 신규 지원신청 공간의 경우 지원액을 책정하는 데에 주의를 기울였다. 시설이 훌

룹하고 운영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높은 공간, 지역과의 연계가 돋보이는 창작공간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되, 지원액을 조정하여 향후 운영상황에 따라 2016년도 증액을 검토하기로 합의하였다. 반면에 사적인 공간을 창작 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운영 계획이 미흡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였다. 신규 지원신청 문학관이 다소 부족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문학행사및연구지원>

문학행사및연구지원 사업은 45건의 지원신청이 이루어졌다. 신청사업에 대하여 ① 사업계획의 충실성 ②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③ 한국문학의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④ 사업성과를 측정하고 환류하기 위한 자체평가체계 ⑤ 사업 예산의 적정선을 기준으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였다.

문학행사와 문학연구지원은 그 성격이 조금 달라, 나누어 심의를 진행하였다. 문학행사의 경우에는 행사의 지속성과 예상 파급효과, 그리고 방향성에 중점을 두어 논의하였다. 또한 조사연구 사업의 경우에는 연구 대상의 적절성, 연구자의 연구능력과 연구 방향 설정의 확실성에 주안점을 두었다.

문학행사 및 연구사업이 한국 문학계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

문학 분야 민간국제예술교류지원 사업은 총 8건이 신청되었으며, 심의를 통해 총 5건을 선정하였다. 주요 심의기준으로 '사업계획의 충실성·타당성'과 '예술적 우수성', '사업계획의 구체적 실현가능성', '사업계획의 국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였다. 또한 14년도에 선정됐던 단체의 경우에는 성과보고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지원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한중 작가회의>는 충실한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중국과 지속적으로 문학교류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파급효과와 성과가 기대되어 계속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국제 PEN 대회 참가>는 세계적인 국제행사로서의 인지도와 파급력이 크므로 지원 대상 사업으로 합당하며, <제8회 한-인 문학예술인 국제 학술제>의 경우, 해가 거듭될수록 인도 내 대학교뿐만 아니라 점차 교류기관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판단됐다. <파주출판도시 스토리텔링 아시아 프로젝트>는 기획이 충실하고 실현성도 높지만 사업의 성과가 지원신청 당시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여 전년도 대비 감액 지원을 결정했다. 마지막으로 <한국-터키 동계 국제 문학인 대회>의 경우, 14년도 몽골에 이어 새롭게 터키와의 교류를 확대해 나간다는 점에서 계속 지원을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국제교류중기기획프로젝트지원·해외레지던스프로그램참가지원>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살펴보았을 때, 사업성과나 문학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파급효과가 뛰어날 것으로 판단되는 신청사업이 없어 선정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문학분야 책임심의위원 일동